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기도의 교제

[살후 3:1-2]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트레코)(빠르게 퍼지고)(NASB, NIV)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나, 성도들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후원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이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와 같이 빠르게 퍼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 능력의 말씀이었다(살전 1:5). 이제 그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힘있게 역사하고 빠르게 퍼지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말씀의 힘있는 역사, 그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말씀의 일꾼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 일행을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었다. ‘무리하다’는 원어(아토포스)는 ‘악하다, 부당하다’는 뜻을 가진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이었을 것이다. 주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도의 직무는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 방해받아서 안 되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직무를

완수하기를 원하고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그를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요 6:66). 사도행전 28:24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날을 정하고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지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자가 아니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5:13).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방해나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바이었고 사도들이 행한 바이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0:14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8:6-7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을 때 바울은 옷을 떨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비록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에게 얽매이지 말고 또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3-4절] 주는 미쁘사(피스토스)(신실하시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너희가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행할 줄을)(전통본문)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주께서 신실하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다. ‘굳게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견고함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성장과 견고함은 다 신실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하였다(빌 1:6). 또 히브리서 12:2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말에서, ‘악한 자에게서’라는 원어(아포 투 폰네루)는 ‘악으로부터’(KJV)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희하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구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잠시 연약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즉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 연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그 연약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가 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은 그가 ‘주 안에서’ 가진 확신이었다. 즉 그는 신실하신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혹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실 것을 확신한 것이다. 사도들의 명령과 교훈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순종케 하실 것이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신 6:5). 잠언 4:23은 “무릇 지키기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헛된 데 두지 말고 선한 일에 두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사랑과 그가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사랑을 다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9-10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인내와 또 우리 속에 주시는 인내를 다 가리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또 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참게 도우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널리 퍼지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되 부족한 저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힘있게 역사하고 또 빠르게 널리 퍼지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며 성경의 교훈을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 교회는 인간 목사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빌립보서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과 교회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구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끊임 없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은 기도하지 않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도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낙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성도의 믿음이 주위에 힘있게 전파되고 군 세어지는 것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목사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강건함과 순종과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더 흥왕할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디나 사건**

[창 34:1-4]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욱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戀戀)하며 끌리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다정히 말하고 그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본장은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거할 때 그의 가정에서 생긴 좋지 않은 일을 기록한다. 그것은 그의 아내 레아가 그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었다. 이것은 야곱에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런 일이었다. 야곱에게는 고난이 많았다. 하란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이런 고통의 일을 당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야곱이 당한 가정적 고통은 하나님의 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가 베엘에서 서원하였던 일을 회상시키셨다(창 31:3, 13).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여 땅을 사고 거기 거하려 하였다(창 33:17-19). 세겜과 베엘 간의 직선거리는 약 30킬로미터이며 베엘에서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까지는 약 45킬로미터이다.¹⁾ 야곱이 베엘이나 헤브론으로 가려 생각하였다면 그곳에서 땅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그곳에서 땅을 산 것은 옳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을 징책하시고 그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게 하셨다고 생각된다.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어린 말들을 듣고 또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보고 그의 마음이 불편했을 때 그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었다

(창 31:1-3). 그는 이번에도 환경적으로 야곱을 불편케 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창 35:1). 디나 사건은 확실히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책이었다.

본장은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도 증거한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한 눈에 반한 것 같다. 그는 그를 끌어들이고 강간하여 욱되게 하였다. 세겜의 마음은 디나에게 끌렸고 그 소녀를 사랑하였다. ‘연련(戀戀)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디바크)는 ‘붙들다, 끌리다’는 뜻이다. 그는 그에게 친절히, 다정히 말하였다. 또 그는 그 아버지 하물에게 그 소녀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해주시기를 청했다. 세겜의 감정은 인간적으로 이해될지라도 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었다. 그가 한 부족의 추장이므로 그 지역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졌겠지만, 그것이 그의 도덕적 탈선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디나 사건은 한 권세자의 도덕적 탈선을 드러낼 뿐이다.

[5-7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강간은 부끄러운 일이며 일어나서는 안 될 부도덕한 일이었다.

[8-12절]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드리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빙물신부값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드리리라.

8절의 ‘연련하다’는 원어(키쉬크)는 ‘애착을 가지다, 사랑하다’는 뜻이다. 세겜은 디나에게 반했고 그를 사랑했다. 19절도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키페츠)[기빠함]이며”라고 기록한다. 본장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끌렸고 사랑했으며 그에게 다정히 말했고(3절) 마음이 붙잡혔고(8절) 기빠하였다고 말한다(19절).

세겜의 사랑은 참 사랑이 못 되었다. 그의 사랑은 강간이라는 정당치 못한 행위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가

1) 대략적으로, 30킬로미터는 함정동에서 수원까지의 직선거리이며, 45킬로미터는 수원에서 거의 천안까지의 직선거리이다.

합의한 혼전 동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조심하고 지혜롭게 피해야 할 죄이다.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고전 13:4) 단순히 자기 욕망의 충족이 아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므로 7년을 수일같이 참았다(창 29:20).

[13-17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18-24절]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리라.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 . .

21절에 ‘친목하다’는 원어(살렘)는 ‘화친하다’는 뜻이다.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야곱의 사람들과 재산들이 결국 다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은 추장 세겜의 요청대로 할례를 받았다.

[25-29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것은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일에 대한 보복이었다. 추장 세겜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와 그의 부친과 그 성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다고 보인다

[30-31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뱀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

함이 가하니이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며 그 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와 그 집을 쳐서 멸망시킬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라고 아버지께 반문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에게 속여 대답한 것이나 그들을 죽인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셨는지는 잘 몰라도 확실히 그것을 허용하셨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행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이었다(7절). 그러므로 본장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고 두 번 기록한다(13, 27절). 그것은 세겜이 받은 보복이 도덕적으로 마땅함을 보이는 것 같다. 강간은 분명히 별받을 큰 악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큰 근심거리가 또 생겼다.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다. 시편 34: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도는 조금만 잘못을 행해도 하나님의 징책을 경험한다. 많은 경우에, 고난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부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치기를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세겜은 디나를 강간함으로 그와 그의 종족이 큰 화를 당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자녀들과 여자들은 사로잡혔다. 사람은 순간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범죄하고 믿음과 지혜로 그런 환경을 피하지 못함으로 반복해 범죄하고 마침내 큰 불행에 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도덕이 있다. 살인과 간음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 도덕법을 주셨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요 섬리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고 남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불행이다. 자기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될 것이다(계 21:8).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